

ARTLAB DAEJEON

02;

이음노미술관 신수장고 M2 프로젝트룸
2019. 07. 11—07. 31

손민광 Son Minkwang



사람과 장소-
다양한 관점으로 표현함에 대한

일생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과 장소들을 접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생산하게 된다. 그것들은 직접적일 수도 있고 간접적일 수도 있다. 직접적인 것들은 희로애락을 사람들과 현실에서 함께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경우이며, 간접적인 것들은 텔레비전 등의 매체, 스마트폰, 여러 인터넷 매체(SNS) 등의 활용으로 만나게 되는 광범위한 사람들과의 만남, 목도하게 되는 사건/사고 등이다.

모든 작업은 각 인물들과 장소들에 대한 배경지식-그 인물이 위인이나 유명인일 경우 일대기나 일화, 사건 등을 인식한다. SNS 등의 매체의 경우 그 인물들이 올린 이미지들과 글들, 그들과 나누었던 댓글과 채팅으로 간접적으로 인물에 대한 정보 등을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그리고 인터뷰나 그 밖의 대화의 녹취 또는 동영상 등의 직접 자료 수집을 활용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장소들의 경우 일정기간이나 오랜 기간 동안 일기형식으로 -사진과 영상, 수기 등의 방식으로- 배경지식을 습득하거나 여러 매체들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작품을 진행해 나간다.

- 작가노트 중에서

프로이드는 사디즘이나 마조히즘 등의 이상 심리에서 사랑과 미움, 복종과 반항, 쾌(快)와 고(苦)등 상반된 감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양향성(Ambivalence)이라고 하였다. 느낌에 대한 표현 보이지 않는 것을 눈앞에 토해내기란 쉽지가 않았다. 여러 가지 형식들을 거치면서 먼저 표현주의 형식으로 느낌과 생각들을 표현을 시도해 보았고 이어 기하학적 추상 등으로도 표현의 다양성을 꾀하였다.



초상화, 상식적인 개념과 정의들의 알레고리

고충환 미술평론가

Various points of view. 다양한 시점 혹은 관점이란 의미다. 시점보다는 관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작가의 작업은 시점에 대한 형식 실험보다는 관점의 차이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똑같은 사람도 관점이 달라지면 다르게 보인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다르게 보인다. 관점은 어디서 오는가. 타자로부터 온다. 타자들의 다른 관점이 똑같은 사람을 본다. 그러므로 그는 어쩔 더 이상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 타자들의 수만큼이나 많은, 다른 관점들의 수만큼이나 많고 똑같은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똑같은(아님 다른?) 사람들이다. 그(혹은 그들)는 누구인가. 타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건 다름 아닌 바로 그(혹은 그들)라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다름 아닌 바로 그(혹은 그들)라고 어떻게 특정할 수 있는가. 본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보는 건 그저 보는 것이 아니다. 그저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보는 것은 욕망이다. 난 널 그렇게 봐. 난 네가 그렇다고 생각해. 난 결코 너를 향한 나의 욕을, 그러므로 나의 욕망을 배신할 수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어. 그렇게 네가 나를 만든다. 타자가 주체를 만든다. 그러므로 나를 향한 너의 욕이 없으면 나도 없다. 나를 향한 타자의 욕망이 없으면 주체도 없다.

그렇다면 그이면서 동시에 그들이기도 한 그는 도대체 누구인가. 바로 얼굴이다. 한 사람의 얼굴 속엔 그이면서 동시에 그들이 그 산다. 얼굴이란 열이 사는 굴이고 꿀이고 집이라는 말이다. 열이 뭔가. 타자들의 욕망이 형성시켜준 인격이다. 그러므로 타자들의 욕망이고 타자들이다. 그렇게 한 사람의 얼굴 위로 타자들이 기거한다. 잘 안 보이지만, 잘 보면 타자들의 희미한 그림자가 보인다. 작가는 시종 사람 얼굴을 그렸다. 그건 어쩔 한 사람의 얼굴 위에 어른거리는 타자들의 희미한 그림자를 붙잡으려는 몸짓이었던지도 모른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결단코 다른 사람일 수는 없다고 특정할 수 있게 해주는 근거가 있는가.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는 뭔가. 보는 관점이 약간만 빼끗해도 안 보이던 것들(얼들? 유령들?)이 보이는데, 약간만 한눈을 팔아도 타자들이 보이는데 어떻게 동일인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작가는 바로 그라고 확인할 수 있는 그의 실체를 찾아서 얼굴 위를 헤맨다. 그리고 지우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긍정과 부정울 수도 없이 오가면서. 그렇게 그가 그린 얼굴 위에 치열한 흔적이 남는다. 어쩔 이로써 타자들의 희미한 그림자가 오롯한 실체를 얻었을 흔적이 남는다. 그렇게 작가는 그이면서 동시에 그들이 그의 얼굴을 그렸다. 존재론적인 얼굴들이다.



그이면서 동시에 그들이나, 하나의 얼굴 위에 어른거리는 타자들의 그림자는 결국 자기분열을 의미한다. 이중인격과 다중자아를 의미한다. 그렇게 분열적인 주체, 이중적인 인격, 다중적인 자아가 얼굴 위로 날날이 등록된다. 그래서 작가의 초상그림은 재현과 탈재현을 넘나든다. 열일 할 것도 같고(재현) 모를 것도 같다(탈 재현). 그렇게 작가는 처음에 주변사람들부터 그리기 시작하다가 점차 익명적인 주체들로 옮겨간다. 익명적인 주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알려진 공인들이며 공적주체들이다. 이를테면 애국심 투철한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와 유관순 열사, 전 국민의 정의 실현을 위한 결실을 가져온 이정미 전 헌법 재판관, 자식 잃은 타들어가는 가슴을 가진 세월호 희생자 김유민양 아버지 김영씨, 안타까운 희생으로 큰 변화를 가져온 젊은이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희생자 김용균씨, 진정한 의인의 자질을 보여주는 사람 이극중 아주대 외상외과 교수 같은.

그림도 흥미롭고 제목도 흥미롭다. 제목이 아니라면 도대체가 오리무중인 그림이다. 초상화에 대한 관습이 아니라면 미처 얼굴로 알아보기조차 쉽지 않은 그림이다. 그럼에도 얼추 누군지는 알겠다. 언론을 통해 이미 충분히 노출된 탓에 전형성이라고 부를 만한 눈에 익은 형태가 있어서다. 친절하고 장황한 설명을 곁들인 제목은 또한 어떤가. 각 개별 인물에 대한 설명(혹은 차라리 논평?)은 작가 개인의 생각인가 아님 언론이 정의한 걸 퍼다나른 것인가. 주관적인 생각인가

아님 대중적인 생각인가. 자기인식의 결과인가 아님 언론플레이와 프레이밍 그리고 이미지 정치학의 소산인가. 미디어의 시대에 개별 주체의 자기인식은 곧잘 미디어의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자기인식과 미디어의 인식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혼동된다. 그 과정에서 일종의 인식론적 효율성의 법칙이 작동해 복잡한 현상은 삼빳한 전형으로 정리되고, 무미한 선명성 개념으로 재단된다. 애국심, 정의, 희생(그리고 희생자), 그리고 의인 같은. 그리고 작가는 애국심을 표상하는 형태, 정의에 걸 맞는 색깔, 희생자에 부합하는 질감, 그리고 의인에 어울릴 만한 분위기를 찾아준다. 그렇게 의인은 의인답게, 정의는 정의롭게, 희생자는 희생자답게 그려진다. 그러므로 작가의 그림은 결국 누군가를 특정해 그렸다고보다는(비록 외관상 누군가를 특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리고 어쩔 결과적으로는 초상에 빚대어 의로움의, 정의의, 희생의 알레고리를 그린 것일 수 있다. 통념적인, 상식적인(롤랑 바르트라면 독사 doxa라고 했을), 그리고 어쩔 미디어적인 개념과 정의들의 알레고리를 그린 것일 수 있다.

그렇게 작가는 사람과 함께 장소를 그렸다. 대전 이응노미술관, 양주시립장육진미술관,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 홍성 이응노의 집(기념관)을 그렸다. 일정기간 작가의 삶을 함께한(이를테면 레지던시) 곳도 있고, 그저 스치듯 다녀간 곳도 있다. 그 장소 역시 인물초상과 마찬가지로 감각적으로 재현하는 대신 그곳에 대한 인상과 느낌에 부합하는 형태, 사건과 사고에 걸 맞는 색깔, 역사와 정보에 어울릴 만한 질감으로 해체하고 재구성해 그렸다. 이로써 작가 개인에겐 사사로운 기억이나 추억을 되새기게 해주는 그림이 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지는 모르겠다. 무슨 말인가. 알만한 장소를 그린 것인 만큼 최소한의 객관정보(이를테면 건물구조와 같은)라는 것이 있을 터이지만, 그 밖의 것들, 이를테면 기억이나 추억이란 것이 워낙에 사사로운 것이어서 하는 말이다. 여하튼 그렇게 작가는 건물에 사사로운 기분을 투사하고, 장소에 자기감정의 입김을 불어 넣는다. 이로써 건물을 빌려, 장소에 기대어, 그리고 물론 익명적인 초상을 구실 삼아 자기서사(개인사)를 기술하는 자기만의 방식을 찾아냈다고나 할까. 그리고 여기에 최근에는 페인팅과 드로잉을 넘어 도기로 그리고 영상으로 매체를 확장하고 있는 것도 주목해볼 일이다.





사람. 장소 : 홍성에서 대전까지 캔버스에 아크릴채색, 세라믹, 가변설치, 2018-2019

a person and place ; from Hongseong to Daejeon acrylic on canvas, ceramic, variable installation, 2018-2019

사람들 3 캔버스에 아크릴채색, 가변설치, 2017-2018
People 3 acrylic on canvas, variable installation, 2017-2018





전 국민의 정의 실현의 결실을 가져온 헌법 재판관
캔버스에 아크릴채색, 90.9X72.2cm, 2019



사람들 4 캔버스에 아크릴채색, 가변설치, 2019
People 4 acrylic on canvas, variable installation, 2019



사람들 5 캔버스에 아크릴채색, 가변설치, 2019
People 5 acrylic on canvas, variable installation, 2019

사람들 6 종이에 연필 드로잉, 혼합재료, 가변설치, 2019
People 6 pencil on paper, mixed media, variable installation, 2019





손민광 Son Minkwang

crmkson@naver.com

학력

- 2011 한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졸업
- 2009 한남대학교 조형예술대학 회화과 졸업

개인전

- 2019 아트랩대전-Variou points of view (이응노미술관 M2프로젝트룸 / 대전)
- 2018 Variou points of view (모리스 갤러리 / 대전)
- Variou points of view (모산조형미술관 / 보령)
- 2017 Variou points of view (이응노의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 / 홍성)
- Variou points of view (아트스페이스 장 / 대전)
- 2016 Variou points of view (모리스 갤러리 / 대전)
- 2015 도심 속 찾아가는 미술관 기획초대 손민광展 (신선미술관 / 목포)
- 갤러리DM기획-Variou points of view (MaTIC Art Gallery / Malaysia KL) 외 다수

그룹/기획전

- 2019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자연미술 큐브전 '12x12x12+자연' (금강자연미술센터 / 공주)
- 2018 제3회 뉴드로잉 프로젝트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 양주)
-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자연미술 큐브展 '12x12x12+자연' (금강자연미술센터 / 공주)
-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영상전 주제:바람(Wind) (연미산자연미술공원 등 / 공주)
- 물려 줄 환경, 미술관 속 철학 이야기 V 展 (상원미술관 / 서울)
- 길 위의 가치 ; JUSTICE, 미술관 속 철학 이야기 IV 展 (다산미술관 / 화순)
- 2017 신선미술관 소장 작품전<개관 3주년의 발자취> (신선미술관 / 목포)
- 상흔의 초상 展 (해움미술관 / 수원)
- Chennai Chamber Biennale (Lalit Kala Akademi / India Chennai)
-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자연미술 큐브展 '12x12x12+자연' (금강자연미술센터 / 공주)
- 길 위의 가치 ; JUSTICE, 미술관 속 철학 이야기 IV 展 (상원미술관 / 서울)



- 2016 Korea Contemporary Art Show (Nepal Art Council / katumandu)
- Goog 삶 예찬, 미술관 속 철학 이야기 III 展 (상원미술관 / 서울)
- 2015 광주국제현대미술展 (광주비엔날레전시관 / 광주)
- 파리에 서는 나무展 (89 Gallerie / 프랑스 파리)
- ART -LINK project BN (타임스퀘어쇼핑센터 / 브루나이)
- 2015년 미술주간행사 <나는 무명작가다>展 (아르코미술관 / 서울)
- "나는 불꽃이다,서울" (63아트 미술관 / 서울)
- 2014 가을! 14색(色)의 심미(審美) 展 (신선미술관 / 목포)
- 2013 토끼와 거북이展 (양평군립미술관 / 양평) 외 다수

레지던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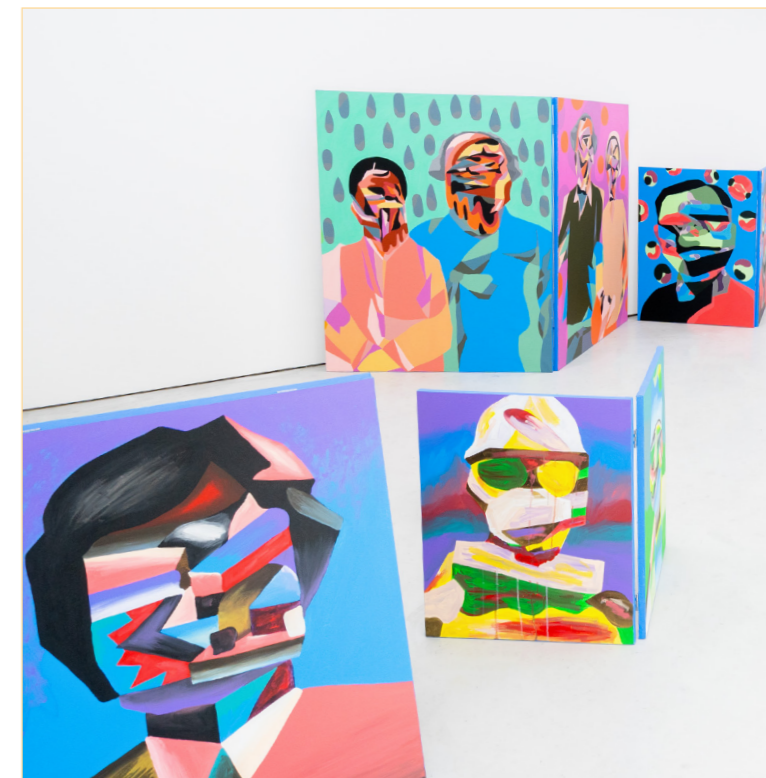
- 2018 수로요 도예레지던스 6기 입주작가 (고성)
- 모산조형미술관 WCAS 국제조각레지던스 3기 입주작가 (보령)
- 2017 이응노의 집-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 창작스튜디오 1기 입주작가 (홍성) 외 다수

프로젝트

- 2019 <아트랩대전 프로젝트> (이응노미술관 / 대전)

수상/선정

- 2018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영상전 주제:바람(Wind) 선정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 공주)
- 2017 강원국제비엔날레2018 <포스트폴리오 리뷰> 참여작가 선정 (강원국제비엔날레 / 강원도)





아트랩대전은 젊고 창의적인 작가들에게 예술인 경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전시공간을 지원하는 이응노미술관의 새로운 프로젝트입니다. 회화, 조소, 사진, 영상, 미디어, 퍼포먼스 등 시각예술분야에서 실험적인 작업에 열정이 있는 작가들을 지원합니다.